

## [ 사회 ]

# 광주·전남 정신병원 환자 10명 중 8명이 '강제 입원'

정신질환자 7.8% 입원 치료중

광주·전남지역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10명 중 8명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 등 타인에게 떠밀려 병원 신세를 지는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
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(54·열린우리당)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광주·전남지역 정신의료 기관 40곳에 입원 중인 5천717명의 82.5%(4천714명)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입원 조치됐다.

이 중 정신보건법(제24조)의 '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'에 따라 가족이 입원시킨 환자가 90%(4천257명)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

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가족은 부모 31.5%(1천344명)·형제 29%(1천234명)·자녀 18%(766명)·배우자

■ 광주·전남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현황

총입원 환자수	자의 입원	타의 입원			
		소계	기족이 보호의무자	시·도지사 등 보호 의무자	보호 의무자
광주	1,820	437 (24.0%)	1,383 (76.0%)	1,137	246
전남	3,897	566 (14.5%)	3,331 (85.5%)	3,120	211
계	5,717	1,003 (17.5%)	4,714 (82.5%)	4,257	457

서 쓰러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 시·도지사 등 자자체장에 의해 병원에 입원했다.

광주의 경우 ▲기독정신병원 215명 중 208명 ▲인광정신병원 입원환자 279명 중 210명 등 19곳 병원 입원 환자 1천820명의 76%(1천383명)가 타인에 의해 입원이었다.

전남은 ▲영광 기독신병원 518명 중 500명 ▲남평미래병원 200명 중 127명 등 21곳 입원환자 3천897명의 85.5%(3천331명)가 가족 등에 의해 입원했다.

반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입원한 환자는 17.5%(1천3명)에 그쳤다. 전

국적으로도 1천115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5만3천489명 중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'자원 입원' 환자는 10.9%(5천850명)에 불과했다.

이번 결과는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입원동의서 작성자 등 자료를 받아 분석했으며,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전체 환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한편 국립나주정신병원 등에 따르면 광주·전남지역에는 7만3천여 명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며, 이 중 7.8%가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## 유사석유 3만원 넣고

## 과태료 50만원 물어

## 광주·전남 첫 적발

지난달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이후 광주·전남지역에서 첫 위반자가 적발됐다.

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

는 나주지역 국도에서 유사휘발유를 구입한 운전자 박모(38·진도군)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.

호남지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1t 트럭에 유사석유제품을 살고 다니며 불법영업을 하던 정도 (50)씨로부터 유사휘발유 18ℓ 용

기 2통을 3만6천원에 구입,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했다는 것이다.

박씨는 거주지 자체에 통보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.

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령을 공포, 유사 석유를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.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의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

/안현주기자 ahj@kwangju.co.kr

## 경찰 채용 키·몸무게 제한 폐지

## 내년 하반기 시행...체력 평가기준은 강화

경찰청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에 관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.

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 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 키 167cm 이상, 몸무게 57kg 이상, 여자 키 157cm 이상, 몸무게 47kg 이상 등 제한 규정이 적용돼 왔다.

경찰청 관계자는 "기존의 신체 조건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찰 활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"고 말했다.

경찰은 그러나 범인 제압이나 사격 등과 직결되는 좌우 악력(손으로 쥐

는 힘)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기로 했으며, 현행 종목인 100m 달리기·윗몸일으키기·제자리멀리뛰기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.

새로운 채용 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해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.

경찰청은 허준영 전 청장 재직 시절이던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"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"라는 개선권고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
/연합뉴스

## 최고 80mm 폭우 또 온다

## 광주·전남 내일까지 천둥·번개 동반 비

가을의 길목인 입추(立秋)를 하루 앞둔 7일, 광주·전남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30~8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.

광주지방기상청은 "7일 광주·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호리고비가 내리겠으며,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많겠다"고 예보했다.

기상청은 또 "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~3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, 바다에서는 짙은 해무(海霧)가 끼는 곳이 있겠으나 조업 및 항해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"을 당부했다.

무더위를 식혀 준 이번 비는 입주인 8일까지 이어지겠다.

/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

## 창가의 빗방울

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호리고비 오겠다.

광주	흐리고 비	23~30°C
포항	흐리고 비	24~29°C
여수	흐리고 비	23~28°C
완도	흐리고 비	23~30°C
구례	흐리고 비	24~30°C
제주	흐리고 비	23~30°C
장흥	흐리고 비	23~30°C
고성	흐리고 비	23~29°C
순천	흐리고 비	22~29°C
광주	흐리고 비	24~30°C
전남	흐리고 비	23~30°C
원주	흐리고 비	24~30°C
목포	흐리고 비	22~30°C
제주	흐리고 비	22~27°C

서해남부  
안나다=남동~남서풍 파고 1.0~2.0m  
만나다=남동~남서풍 파고 1.5~2.5m

남해서부  
안나다=남동~남서풍 파고 1.0~1.5m  
만나다=남동~남서풍 파고 1.0~2.5m

목포 밀물 07:56 썰물 12:12

여수 밀물 02:38 썰물 09:06

▲해뜸 05:45 ▲해침 19:31 ▲달뜸 --:-- ▲달침 14:45

◇주간날씨

날짜 8(수) 9(목) 10(금) 11(토) 12(일) 13(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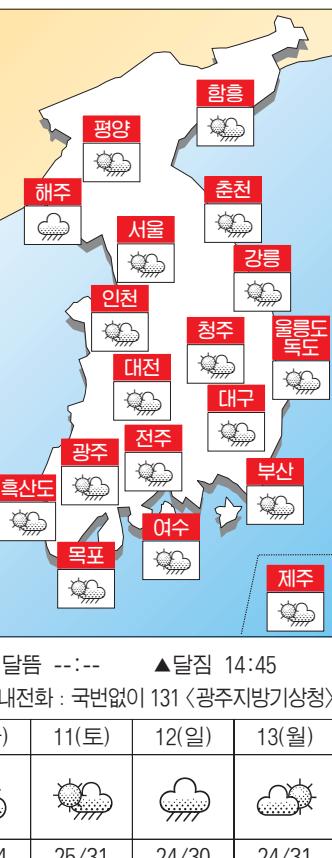
날씨 ☁ ☁ ☁ ☁ ☁ ☁

최저/최고 24/31 25/33 26/34 25/31 24/30 24/31

8월 7일

(음 6월 25일)

◇전국날씨



## 여중·여고생 흡연률 성인 여성 2배

## 흡연자 21%는 성경험

녀의 음주율 38.5%는 여자 성인의 2005년 음주율(36.3%)보다 높은 것이다. 술을 쳐서 하는 시기도 점차 낮아져 1998년 15.1살에서 2006년 12.6살이 됐다.

또 18세 청소년의 5분의 1(19.8%)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(2006년 12.4%)이 성인 여성(2005년 5.8%)의 2배를 넘어섰다.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도 1998년 15살에서 2006년 12.5살로 떨어졌다. 청소년 흡연자 가운데 75.8%가 술을 마시고 있으며, 21.6%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/연합뉴스



## 물고트기 분주

휴일인 5일과 6일 진도 160.2mm 등 광주·전남에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, 7일 또다시 최고 80mm

의 폭우 소식이 전해지자 나주시 남평면 샛터마을의 한 농부가 논 물꼬를 터

/나주=위직령기자 jwv@kwangju.co.kr

## '기러기 아빠' 네 명 중 한 명 과다음주

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?"라는 질문에 '없다'는 답이 36%로 가장 많았으나 '주 1회'라는 대답도 23%나 됐다.

'외로움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?'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'3~4일에 1회 이상'이 39%, '거의 매일' 23%, '주 1회 미만' 21%로 파악됐다. '기러기 아빠'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는 '취미활동'(23%)이나 '운동'(20%)을 하는 비율이 43%였다. 'TV 시청'(23%)과 '음주'(20%)도 많았다. /연합뉴스

**JT (주)조이드래블**

234-3222

329,000	410,000	440,000	329,000
329,000	410,000	440,000	329,000

**한국전기통신공사**

장사(장가계) 헌세리 택한

329,000	379,000	399,000	329,000
329,000	379,000	399,000	329,000

**한국전기통신공사**

장사(장가계) 헌세리 택한

329,000	379,000	399,000	329,000
329,000	379,000	399,000	329,000

**한국전기통신공사**

장사(장가계) 헌세리 택한

329,000	379,000	399,000	329,000
329,000	379,000	399,000	329,000

**한국전기통신공사**

장사(장가계) 헌세리 택한

329,000	379,000	399,000	329,000
329,000	379,000	399,000	329,000
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10px; margin